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8 주차 (롬 15:17~16:16)

(2018년 5월 27일 - 2018년 6월 22일)

(제5권 38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5 월 2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5:17~21)

- ¹⁷ ἔχω οὖν [τὴν] καύχησιν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ὰ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을 [지니고 있다])
- ¹⁸ οὐ γὰρ τολμήσω τι λαλῆν (나는 어떤 것이든 무모하게 말하지 않는다)
ὧν οὐ κατειργάσατο Χριστὸς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δι' ἐμοῦ (나를 통하여)
εἰς ὑπακοὴν ἔθνων,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
λόγῳ καὶ ἔργῳ, (말과 행동으로)
- ¹⁹ ἐν δυνάμει σημείων καὶ τεράτων,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ἐν δυνάμει πνεύματος [θεοῦ].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ὥστε με ὀπὸ Ἱερουσαλὴμ καὶ κύκλῳ μέχρι τοῦ Ἰλλυρικοῦ πεπληρωκέν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다)
- ²⁰ οὕτως δὲ φιλοτιμούμενον εὐαγγελίεσθαι (비록 내가 복음 전하는 강한 야망을 가졌지만)
οὐχ ὅπου ὠνομάσθη Χριστὸς,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서는 하지 않았다)
ἵνα μὴ ἐπ' ἄλλότριον θεμέλιον οἰκοδομῶ,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²¹ ἀλλὰ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그러나 기록한 바와 같이)
οἷς οὐκ ἀνηγγέλη περὶ αὐτοῦ ὄνονται, (그에 대하여 받지 못한 이들이 보게 될 것이며)
καὶ οἱ οὐκ ἀκηκόασιν συνήσουσιν. (듣지 못한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과 사역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로 한계를 정해 두었다. 일루리곤은 지금의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이다. 참고로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 반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사도들—특히 사도 바울 팀—이 찾아다니며 직접 전도를 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은 이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로마도 그 중의 하나였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지역까지로 정해 두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다음 차례가 로마와 스페인이 될 것임을 던지시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가 복음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부터였다. 사도행전 13 장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²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³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1-3).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으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도했다는 말은 어찌 보면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정확히 표현하면 안디옥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하거나, 더 정확히는 안디옥에서부터 고린도까지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의 경계 지역인 일루리곤까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두 지역을 언급한 것은 지리적인 것보다

는 신학적인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신학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으며,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로마 제국 전역으로까지 교회가 확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다. 반면 로마인들은 로마를 제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보았다. 예루살렘 중심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구약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자. 에스겔서 5장 5절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겔 5:5).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의 끝으로 인식되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1세기 중반 로마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과 전혀 달랐다. 이동 수단이라봤자 인력에 의존하는 낡고 느린 목선 정도고 대부분은 두 발로 걸어다녀야 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특권층들이었다. 바울은 주로 도보로 아시아 지역을 순회했고, 바다를 만나면 배를 얻어 타고 이동했다. 그렇게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닌 거리가 약 17,000km가 넘는다고 한다. 그는 약 9년간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길에 올랐다. 바울은 이를 한 마디로 줄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돌면서(쿠클로, κύκλω) 전도를 했다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물론 로마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외딴 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된 자들이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타오른 복음의 불길이 아시아를 넘어 일루리곤을 거쳐 이탈리아 반도뿐 아니라 스페인에까지 번질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는 놀라운 복음이 드디어 로마의 턱밑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내로라하는 종교 지도자 하나 없이 그들만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왔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간에 형성된 골 깊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제 말로만 듣던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오겠다고 한다. 그리고 후에 이 약속은 실현된다. 바울의 이 한 마디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이다. 바울은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미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했다(롬1:11참조). 물론 그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간에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다. 어떤 이의 손으로 전해지고 누군가의 입으로 선포된 바울의 편지(로마서)를 듣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무언가 모를 뜨거운 열정으로 달아올랐을 것이다.

오늘날은 복음의 말씀이 넘쳐난다. 적어도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복음의 풍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또는 마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과는 동떨어진 외딴 섬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를 다시 한 번 읽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기를 권한다.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17~21)

- ¹⁷ ἔχω οὖν [τὴν] καύχησιν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ὰ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을 [지니고 있다])
- ¹⁸ οὐ γὰρ τολμήσω τι λαλῆν (나는 어떤 것이든 무모하게 말하지 않는다)
ὃν οὐ καταιργάσατο Χριστὸς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δι' ἐμοῦ (나를 통하여)
εἰς ὑπακοὴν ἔθνων, (이방인을 순종케하기 위해)
λόγῳ καὶ ἔργῳ, (말과 행동으로)
- ¹⁹ ἐν δυνάμει σημείων καὶ τεράτων,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ἐν δυνάμει πνεύματος [θεοῦ].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ὥστε με ὀπὸ Ἱερουσαλὴμ καὶ κύκλῳ μέχρι τοῦ Ἰλλυρικοῦ πεπληρωκέν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다)
- ²⁰ οὕτως δὲ φιλοτιμούμενον εὐαγγελίεσθαι (비록 내가 복음 전하는 강한 야망을 가졌지만)
οὐχ ὅπου ὠνομάσθη Χριστὸς,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서는 하지 않았다)
ἵνα μὴ ἐπ' ἄλλότριον θεμέλιον οἰκοδομῶ,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²¹ ἀλλὰ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그러나 기록한 바와 같이)
οἷς οὐκ ἀνηγγέλῃ περὶ αὐτοῦ ὄνονται, (그에 대하여 받지 못한 이들이 보게 될 것이며)
καὶ οἱ οὐκ ἀκηκόασιν συνήσουσιν. (듣지 못한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았다. 이미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에는 될 수 있는 한 가지 않았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두 가지 경로로 전파되었다.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도들이 아닌 이름없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서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로마 교회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는 슬프고도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 생활을 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소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그들끼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유대교 신봉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번 발화된 핍박의 불길은 건잡을 수 없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흩어졌다.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AD 50년대 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로마로 가던 베드로는 지금

의 터키 북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 베드로 전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²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전 1:1-2).

베드로가 언급한 지역 중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는 바울의 전도 지역과 전혀 겹치지 않는다. 이들에게 언제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학자들은 이들 지역의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전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로 추측하고 있다. 즉, 바울이 아닌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비록 내가 복음 전하는 강한 야망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서는 하지 않았다”(20절). 바울은 실제로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지시로 전도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여러 번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6장 4절~7절을 읽어보자.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⁵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⁶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⁷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4-7).

사도 바울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들러야 할 곳이 많았다. 겨우 주요 도시 몇 군데만 방문했을 뿐이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바울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갈 계획이었다. 성경은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표현한다. 애썼다는 말은 반복해서 시도를 했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영이 그를 막았는지는 알 수 없다. 바울 일행은 사탄이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았다. 바울이 가고자 애썼던 비두니아가 바로 베드로전서에 언급된 그 지역이다.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바울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랬다기보다는 성령님이 그의 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요즘은 미국 교회들은 중남미 지역 선교에 공을 들인다. 그런데 그 지역은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사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유럽 지역이다. 한때 교회의 중심지였던 그곳은 이제는 유적들만 덩그러니 남은 미전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 복음은 화석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그런데도 정작 유럽은 선교에서 도외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음과 무관하거나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오늘날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당신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땅끝 스페인을 향하여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22~24)

²² Διὸ καὶ (그러므로 또한 이러한 이유로)

ἐνεκοπήμι τὰ πολλὰ τοῦ ἐλθεῖν πρὸς ὑμᾶς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한 일이 방해받았다)

²³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μηκέτι τόπον ἔχων ἐν τοῖς κλίμασιν τούτοις (이들 지방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ἐπιποθίαν δὲ ἔχων τοῦ ἐλθεῖν πρὸς ὑμᾶς ἀπὸ πολλῶν ἐτῶν, (수년 전부터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강한 원함이 있으니)

²⁴ ὡς ἂν πορεύωμαι εἰς τὴν Σπανίαν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게 되면)

ἐλπίζω γὰρ διαπορευόμενος θεάσασθαι ὑμᾶς (나는 지나가면서[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καὶ ὑπ' ὑμῶν προπεμφθῆναι ἐκεῖ (너희에 의해 거기서 파송되기를)

ἐὰν ὑμῶν πρῶτον ἀπὸ μέρους ἐμπλήσθῃ. (민약 가능하면 우선 너희 지체들로부터 얼마를 채우고)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고 생각지도 않은 드로아 항구까지 몰아가신 분은 성령님이다. 비두니아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제는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려는 하나님의 강한 인도가 그로 하여금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여러 번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방해를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방해하다’라는 헬라이어 동사 에르코프토 (ἐγκόπτω)는 군사 용어에서 나왔다. 군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와 적진 사이에 깊은 도랑을 파서 적들의 진입을 막는 데서 유래한 단어라고 한다. 사실 이런 도랑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 도랑은 사탄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성령님이 판 것이다. 성령님은 로마로 가려는 것을 막은 것이다. 이 도랑을 공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남아 있는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다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남은 곳은 로마와 땅끝 스페인뿐이다. 드디어 도랑은 메워지고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은 권력과 문화의 중심인 로마에 머물며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곳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복음이라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있는 것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타인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생명력을 발휘한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은 산 자보다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와 함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복음을 받아 교회가 뿌리를 내릴 무렵 로마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면서 로마 교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났다. 바울은 구원얻는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놓고 싶었다. 로마 교회 내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교회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24 절에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한다고 했다. 바울에게 있어 로마는 전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었다. 바울의 머리 속에는 온통 스페인이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처음 그가 파송을 받은 곳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그는 원래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아니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바나바가 먼저 와 있었고 훗날 그가 사울(바울)을 그곳으로 데려와 함께 동역한 것이다. 사도행전은 유래없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수년간의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숙해졌고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하며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의 모든 선교 비용을 지원했다. 물론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얼굴도 본 적 없고 교제도 전혀 없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을 파송해 줄 뿐 아니라 얼마간의 선교 비용까지 부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라. 남가주의 유명한 교회의 어느 목사가 일면식도 없는 동부 뉴욕의 어느 교회에 편지해서는 자신이 유럽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신을 파송하고 선교 자금까지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격이다. 만약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기꺼이 선교 자금을 지원해 줄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이 철면피처럼 뻔뻔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교회들이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초대 교회가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는 당연한 관행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울은 특정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일종의 순회 선교사였다. 당시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그들이 누구든 간에 하나의 교회였다. 바울은 더 이상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다. 요즘은 정치적인 언어를 빌리자면 일종의 전국구에 해당한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꺼이 도울 수 있었고, 바울이 단 한번도 그들과 함께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파송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폐쇄적인 기독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개신교는 기존의 카톨릭 교황 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개별 교회 중심의 체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구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교황 체계도 성경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기독교 내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초교파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교회 중심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만을 위한 신앙 생활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우물안 개구리 식의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에 잘못된 생각을 지닌 목회자를 만나면 교회 전체가 자칫 믿음과는 동떨어진 길을 걷게 된다. 성도들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심지어 이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달랐다.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는 특정 교회에 속한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도였다. 로마 교회는 그를 기꺼이 스페인으로 파송하려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있어 땅끝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부채 의식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25~29)

²⁵ Nūni δὲ (그러나 지금은)

πορεύομαι εἰς Ἱερουσαλὴ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διακονῶν τοῖς ἁγίοις (성도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²⁶ εὐδόκησαν γὰρ Μακεδονία καὶ Ἀχαΐα κοινωνίαν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성도들이 기뻐하였음이라)

τιὰ ποιήσασθαι εἰς τοὺς πτωχοὺς τῶν ἁγίων τῶν ἐν Ἱερουσαλὴ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얼마간 돕도록)

²⁷ εὐδόκησαν (그들은 기뻐하였다)

γὰρ καὶ ὀφείλεται εἰσὶν αὐτῶν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빛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εἰ γὰρ τοῖς πνευματικοῖς αὐτῶν ἐκοινωνήσαν τὰ ἔθνη, (이방인들이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ὀφείλουσιν καὶ (그들은 빛을 지고 있고)

ἐν τοῖς σαρκικοῖς λειτουργήσαι αὐτοῖς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²⁸ τοῦτο οὖν ἐπιτέλεσας καὶ (그러므로 [내가 임무를] 완수한 후에)

σφραγισάμενος αὐτοῖς τὸν καρπὸν τοῦτον, (그들에게 이 열매들을 온전히 전해준 후에)

ἀπελεύσομαι δι' ὑμῶν εἰς Σπανίαν (나는 너희를 통과하여 스페인으로 떠날 것이다)

²⁹ οἶδα δὲ (나는 알고 있다)

ὅτι ἐρχόμενος πρὸς ὑμᾶς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ἐν πληρώματι εὐλογίας Χριστοῦ ἐλεύσομαι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누니 데’ (Nūni δὲ). 그러나 지금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중요한 반전이 있을 때 마다 ‘누니 데’ (Nūni δὲ)라는 말을 사용했다. ‘누니 데’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 글을 읽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금방이라도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특히나 바울은 편지만으로 그들이 안고 있던 교회 내의 갈등거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추상적인 이론이나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바울을 통해 생생하게 복음을 전해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를 만난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바울에게는 그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직접 다른 교회에 요청을 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바울은 스페인 전도와 로마 방문보다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마음은 서쪽에 있는 로마를 향하고 몸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셈이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말은 곧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는 뜻이다.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 이웃한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단지 중보 기도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헌금을 요청한 것이다. 바울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8장 1~5 절 그리고 9장 1~2 절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²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³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⁵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고후 8:1-5).

“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²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pek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고후 9:1-2).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특별히 마케도니아 교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많은 환란을 겪었고, 시련 가운데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매우 궁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돈 주머니를 열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나왔을까? 바울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빛을 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영적인 빛을 물질로 갚아주는 셈인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이방에까지 전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인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잠시 들렀던 곳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은 그곳의 폭력배들까지 동원하여 바울의 전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단 세 차례의 설교만 한 후 황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성도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가난한 중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전도자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꺼이 지갑까지 열었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다. 교회를 그저 일종의 멤버십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들에게는 헌금이 그들이 전해 받은 복음에 대한 대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말로는 복음에 빛졌다고 하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 체면이나 생색을 내기 위해, 또는 교회 내에서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헌금을 내는 분들도 있다. 아직도 십일조가 의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이 자신을 살렸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부채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겐 그런 논쟁 따윈 무의미하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채 의식을 갖고 그들을 돕는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복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복음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빛을 어떤 식으로 갚아가고 있나요?

바울의 기도 요청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30~33)

- ³⁰ Παρακαλῶ δὲ ὑμᾶς, ἀδελφοί, (내가 권면한다 [형제들아])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διὰ τῆς ἀγάπη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συναγωνίσασθαί μοι (나와 함께 분투하기를 [권면한다])
ἐν ταῖς προσευχαῖς ὑπὲρ ἐμοῦ πρὸς τὸν θεόν,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 ³¹ ἵνα ῥυθθῶ ἀπὸ τῶν ἀπειθούντων ἐν τῇ Ἰουδαίᾳ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내가 구원되도록 하고)
καὶ ἡ διακονία μου ἢ εἰς Ἱερουσαλὴμ εὐπρόσδεκτος τοῖς ἁγίοις γένηται,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향한 나의 봉사가 받아들여지도록)
- ³² ἵνα ἐν χαρᾷ ἔλθω πρὸς ὑμᾶς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διὰ θελήματος θεοῦ (하나님의 뜻을 따라)
συναναπαύσομαι ὑμῖν. (너희와 함께 쉬어 있기를)
- ³³ Ὁ δὲ θεὸς τῆς εἰρήνης μετὰ πάντων ὑμῶν, ἀμήν.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아멘)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행전 13 장 이후부터는 사실상 복음 전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사도행전 13 장 이후부터는 유대인 전도가 아닌 이방 선교가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로 압송당하는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설교와 간증과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뭉클하게 하고 눈물짓는 대목은 바로 밀라도에서 한 바울의 연설이다. 바울은 3 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라도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라도로 초청한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긴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은 그의 고별사의 일부다.

“²²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²³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²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²⁵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행 20:22-25).

그는 영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예루살렘에는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득실거렸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한 지 20 년도 안되어 그는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파괴하며 이단 사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많았다. 바울은 그들을 돕고자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가는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다짐했고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물론 성령님은 바울은 물론이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까지 이미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 놓으신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기에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듣고 숙연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간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무슨 날벼락같은 말인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담담히 말할 수 있을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비롯해 그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바울은 긴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 한다.

“³²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³³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³⁴ 너희 이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³⁵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행 20:32-35).

바울은 말한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끝나자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그곳은 눈물 바다가 되었다. 바울을 향한 슬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의 숙명 같은 뜨거운 것이 올라와 그들의 눈물샘을 터뜨렸으리라. 그들은 마지막인 심정으로 영적 스승인 바울을 배에까지 인도했다. 바울은 헤어지는 순간에 특별히 자신을 위해 두 가지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한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주시기를,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제대로 잘 전달해 주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소원대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 헌금한 것을 성공적으로 전달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관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가 결국 가이사 앞에서 재판관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고 그럼으로써 그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과 만나게 된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곧장 로마로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오늘날 주옥같은 로마서를 남기게 되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로 갔다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해 손발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모진 옥고와 재판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미련할 정도로 예루살렘행을 고집했고 그 결과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필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믿는다. 그가 남긴 로마서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는가! 이처럼 복음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박음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한줄 알았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목적을 이룬 쪽은 도리어 하나님이다. 세상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이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지만 결국엔 쇠사슬에 매여 옥에 갇힌다. 언뜻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신다.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를 공짜 배를 타고 로마 군대의 호위(?)까지 받으며 안전하게 입성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당신은 삶에서 복음의 역설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매 ‘페비’를 대접하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6:1~2)

¹ Συνίστημι δὲ ὑμῖν Φοίβην τὴν ἀδελφὴν ἡμῶν, (내가 너희에게 우리 자매 페비를 추천한다)

οὕσασιν [καὶ] διάκονον τῆς ἐκκλησίας τῆς ἐν Κεγχραῖς, (그녀는 켄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² ἵνα αὐτὴν προσδέξησθε ἐν κυρίῳ ὀξίως τῶν ἁγίων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대접으로 그녀를 영접하도록)
καὶ παραστήτε αὐτῇ (그녀를 돕도록)

ἐν ᾧ ἂν ὑμῶν χρεία πράγματι· (너희로부터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καὶ γὰρ αὐτὴ προστάτις πολλῶν ἐγενήθη καὶ ἐμοῦ αὐτοῦ.

(왜냐하면 그녀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는 달리 내용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매우 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6 장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한다. 바울이 머물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주요 성도들의 이름을 총망라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은 페비다. 그녀에 관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켄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라는 점과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켄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였다. 켄그리아는 배들이 직접 접안하여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넓게 보면 고린도에 속해 있는 도시여서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다. 페비는 그곳 교회를 섬기던 집사여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은 그녀를 로마 교회에 추천했다. 16 장 1절은 ‘순히스테미’ (Συνίστημι)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이 단어는 추천하다, 천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어원을 알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서다’라는 의미다. 추천을 하는 사람과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함께 나란히 서는 것을 의미한다. 추천받는 사람을 자기 곁에 세운다는 의미는 추천 당사자인 자신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과도 같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페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따라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녀를 추천하고 있는 바울의 말뿐이다. 바울을 보고 그녀를 받아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순히스테미’ (Συνίστημι)는 로마서에서 여섯 번도 두 번 더 사용되었다. 3 장 5절과 5 장 8절인데 각각의 내용을 찾아 보기로 하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συνίστησιν)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롬 3:5).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συνίστησιν)” (롬 5:8).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돋보이게 되어 있다 (3:5).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들추어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와 함께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물론 폐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것이다. 그렇다고 생면부지의 그녀를 로마 교회가 받아줄 리 만무하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부탁은 다소 무리이거나 더 나아가 어찌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다. 단지 반갑게 맞아주고 그녀가 목을 숙소를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단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고 부탁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게 돼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울의 말에 당연히 공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진실되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실제적인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³⁹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⁴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⁴¹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⁴²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⁴³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⁴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⁴⁵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⁴⁶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⁴⁷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⁴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39-48).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법은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구원의 선행 조건도, 구원의 유지 조건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겐 이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날처럼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시대가 다르니 그때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음의 목적이자 결과인 사랑이 변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울의 권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단 한 번도 서로 교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면 한식구처럼 환영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이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에 따라 폐회를 극진히 대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고 무엇보다 이 편지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 의해 보존되고 필사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로마 교회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6:3~16)

- ³ Ἀσπάσασθε Πρίσκαν καὶ Ἀκύλα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τοὺς συνεργούς μου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 ⁴ οἵτινες ὑπὲρ τῆς ψυχῆς μου τὸν ἑαυτῶν τράχηλον ὑπέθηκαν,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어 놓았다)
οἷς οὐκ ἐγὼ μόνος εὐχαριστῶ ἀλλὰ καὶ πᾶσαι αἱ ἐκκλησίαι τῶν ἐθνῶν,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 ⁵ καὶ τὴν κατ' οἶκον αὐτῶν ἐκκλησίαν. (또한 그들의 가정 교회를 [문안하라])
ἀσπάσασθε Ἐπαίνετον τὸν ἀγαπητόν μου, (나의 사랑하는 에파이네토스를 문안하라)
ὃς ἐστὶν ἀπαρχὴ τῆς Ἀσίας εἰς Χριστόν.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아시아의 첫 열매이니라)
- ⁶ ἀσπάσασθε Μαρίαν, (마리아를 문안하라)
ἣτις πολλὰ ἐκοπίασεν εἰς ὑμᾶς, (그녀는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다)
- ⁷ ἀσπάσασθε Ἀνδρόνικον καὶ Ἰουνίαν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를 문안하라)
τοὺς συγγενεῖς μου καὶ συναγματούτους μου, (나의 친척들이고 나의 동역자들인)
οἵτινες εἰσὶν ἐπίσημοι ἐν 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는 유명 인물들이다)
οἱ καὶ πρὸ ἐμοῦ γέγοναν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된 사람들이다)
- ⁸ ἀσπάσασθε Ἀμφιλόττον (암프리아투스를 문안하라)
τὸν ἀγαπητόν μου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 ⁹ ἀσπάσασθε Οὐρβανὸν (우르바누스를 문안하라)
τὸν συνεργὸν ἡμῶν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καὶ Στόχυν (스타쿠스를 문안하라)
τὸν ἀγαπητόν μου. (나의 사랑하는 자)
- ¹⁰ ἀσπάσασθε Ἀπελλιῆν (아펠레스를 문안하라)
τὸν δόκιμον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안에서 인정을 받은)
ἀσπάσασθε τοὺς ἐκ τῶν Ἀριστοβούλου. (아리스도블로스의 가족들을 문안하라)
- ¹¹ ἀσπάσασθε Ἡρωδίωνα (헤로디온을 문안하라)
τὸν συγγενῆ μου. (나의 친척)
ἀσπάσασθε τοὺς ἐκ τῶν Ναρκίσσου (나르키소스를 문안하라)
τοὺς ὄντας ἐν κυρίῳ. (주 안에 있는)
- ¹² ἀσπάσασθε Τρύφαιναν καὶ Τρυφῶσαν (트루파이나와 트르포사를 문안하라)
ταῖς κοπιώσας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ἀσπάσασθε Περούδα τὴν ἀγαπητήν, (사랑하는 페르시스를 문안하라)
ἣτις πολλὰ ἐκοπίασεν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 ¹³ ἀσπάσασθε Ροῦφρον (루포를 문안하라)
τὸν ἐκλεκτὸν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선택된)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αὐτοῦ καὶ ἐμοῦ. (그리고 그와 나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 ¹⁴ ἀσπάσασθε Ἀσύγκριτον, Φλέγοντα, Ἐρμῆν, Πατροβῶν, Ἐρμῶν καὶ τοὺς σὺν αὐτοῖς ἀδελφοὺς,
(이수르크리토스, 플레곤, 파트로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을 문안하라)

- ¹⁵ ἀσπάζεσθε Φιλόλογον καὶ Ἰουλίαν, Νηρέα καὶ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οῦ,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들을 문안하라)
καὶ Ὀλυμπῶν καὶ τοὺς σὺν αὐτοῖς πάντας ἁγίους. (올림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문안하라])
- ¹⁶ ἀσπάζεσθε ἀλλήλους ἐν φιλήματι ἁγίῳ.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ἀσπάζονται ὑμᾶς αἱ ἐκκλησίαι πᾶσαι τοῦ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를 문안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하는 지체들을 소개하며 서로 문안을 하라고 권면한다. 3 절부터 16 절까지 바울은 26 명의 성도, 두 가정, 세 가정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 보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일찌기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인종, 신분, 성별을 넘어서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말이다. 우선 1 세기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²⁶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²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²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6-28).

초대 교회 당시 로마는 영예로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이 극명하게 구분된 사회였다. 로마에서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하는 것은 사실상 용납되지 않았다. 당시 노예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간주되었기에 다른 자산들과 같이 자산 목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에 비해 자유인들은 족보에 이름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천한 신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고 당시 성도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름을 토대로 추정해 보건데 로마서 16장에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여자, 남자 등 매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신약학자 Douglas J. Moo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자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했다. 노예나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여기[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완료되었다. ...(중략)...나는 여기에 가장 최근의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두 개의 결론을 주목하고 싶다. (1) 이름들의 다수는 이방인들이다 (이는 주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2) 대다수 이름들은 노예들과 해방된 노예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이다.” (Douglas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ng, 1996), 918.)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다. 교회 밖에서는 자유인과 노예의 삶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다. 초대 교회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온 신약학자 로버트 뱅크스는 그의 책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써 놓았다.

“잠시 후 브리스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고기에 입이라도 한 번 대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고기 맛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고기는 언제나 공급이 달렸고 가장 좋은 때에도 가격이 엄청났다. 그런데 식탁마다 접시에 여러가지 고기가 담겨 나왔고, 또 다른 접시에는 온갖 채소가 담겨 나왔다. 틀림없이 오늘을 위해 한 주 내내 아껴 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또 다시 내가 맨 먼

저 대접을 받았다. 작은 생선 한 마리와 순무와 콩을 덜어 낸 다음 그 위에 좋은 소금 소스를 얹었다. 또한 맛은 편에서 아리스도블로가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 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 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그릇을 냈다.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지금 또 다시 관대하게 대하는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드물다.”(로버트 벅스, 신현기 역, *1세기 교회 예배이야기*(서울:IVP, 2017), 42-43에서 인용)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교회를 방문한 한 이방인의 눈에 비친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방인 푸블리우스가 처음 가정 교회에 초대되어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시각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노예를 데리고 가정 교회에 참석한 아리스도블로라는 로마 귀족이 그의 종에게 직접 음식을 서빙해 주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은 그릇에 음식마저도 차별이 없었다. 이는 전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간에 차별이 없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였다.

바울은 이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한다. 문안하디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ἀσπάζομαι)다. 아스파조마이는 단지 말로 안부를 묻거나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정도를 뜻하지 않는다. 아스파조마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뺨을 비비며 입맞춤을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사실 이런 식의 문안은 신분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서로 문안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16 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 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롬 16:16).

초대 교회 당시 서로 문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몸 담고 있는 교회를 돌아보게 된다. 도시에 있는 교회의 특성상 가정에서 서로 모이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게다가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물론 형식상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내려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앙은 삶이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벽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면서 그들을 문안할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배려 덕분에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그렇다면 서로 문안하며 서로를 아껴야 하지 않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